

“대한민국,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 꿈 꾸다”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

문 대통령 “세계 경제 재건과 평화질서에 이바지할 것”

“광복의 감격과 그날의 희망은 지금도 우리 미래” 저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독립과 자유, 인간다운 삶을 향한 꿈이 해방을 가져왔다”면서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을 꿈꾼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사)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고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축사 4~5면>

이날 문 대통령은 경축사를 시작하면서 “오늘 마침내 흥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도착한다”며 “독립영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을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의 감격과 그날의 희망은 지금도 우리의 미래”라며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역사와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군사강국의 자부심, 그리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

의 저력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이라며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동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흥범도 장군 유해 봉환… 별세 78년 만에 대전현충원 안장

장군의 귀환

“고난의 역사 되풀이하지 않게 강하고 존중받는 나라 만들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이끈 독립전쟁의 영웅 흥범도 장군이 고국 땅에서 영면했다. <관련기사 2~3면>

지난달 15일 광복절 카자흐스탄에서 봉환된 흥범도 장군의 유해가 18일 오전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 안장됐다. 흥범도 장군이 별세한 지 78년 만이다.

이날 안장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유해 봉환을 위해 카자흐스탄을 찾았던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등 특사단, 정당 대표, 우원식 여천흥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대한고려인협회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지난달 15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흥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환식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안장식에서 “흥범도 장군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며 자부심”이라며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고 장군이 고향 흙에 흘린 눈물은 대한민

국을 더 강하고 뜨거운 나라로 이끌어 줄 것”이라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승리와 희망의 역사”라며 “모두가 만든 승리는 일제 지배에 억압받던 삼천만 민족에게 강렬한 자존심과 자주독

립의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히 부심하여 보란 듯이 잘사는 나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